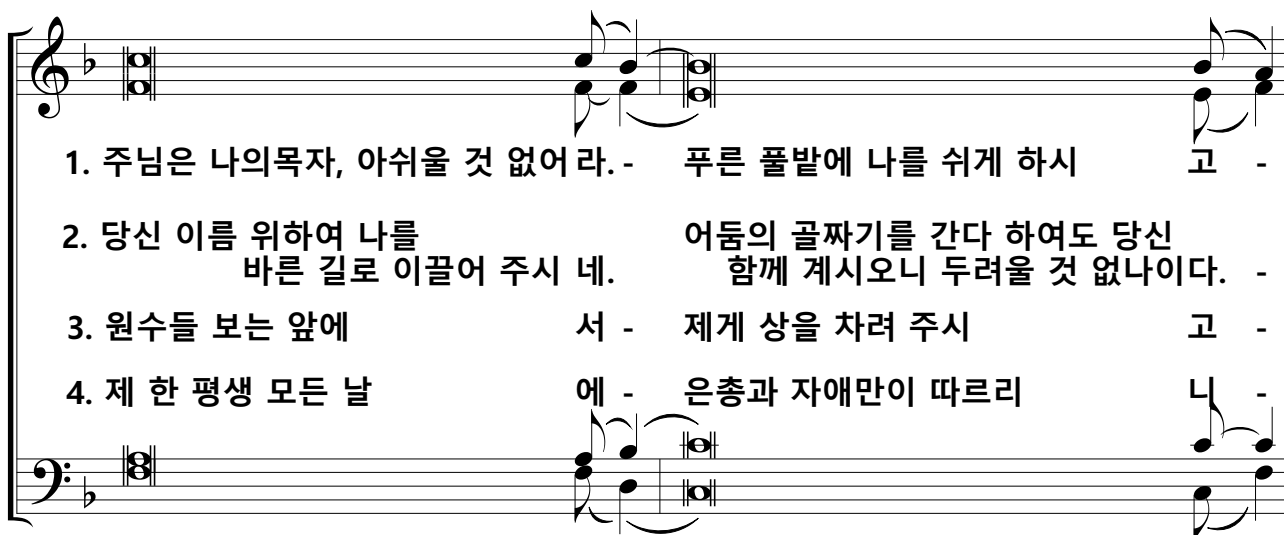


사순 제 4 주일 화답송 [가해]

시편 23(22), 1-3, 3, 4-5, 6



(후렴)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으랴.



1.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으랴. -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 고 -
 2.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
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 네.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. -
 3. 원수들 보는 앞에 서 - 제게 상을 차려 주시 고 -
 4. 제 한 평생 모든 날 에 -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 니 -

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 어 -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 시 - 네.
 당신의 막대와 지팡 이 - 저에게 위안이 되나 이 - 다.
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 니 -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 옴 니 다.
 저는 오래 오 래 - 주님 집에 사오 리 - 다.